

# 등가를 통한 번역의 이론과 구성 요소 분석

박 정 준  
(연세대학교)

## 1. 머리말

번역에 대한 정의는 번역 작업을 실제로 수행하는 역자에 따라, 그리고 번역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제시하려는 학자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Munday(2001 : 4-5)는 번역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번역은 두 개의 다른 문자 언어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과정이며, 역자는 원천 구두 언어(출발 언어)로 작성된 원문(출발 텍스트)을 다른 구두 언어(도착 언어)로 작성된 번역문(도착 텍스트)으로 바꾼다.<sup>1)</sup>

한편, 20세기 후반에 이르기까지 번역 이론이 직역, 의역, 충실한 번역 사이의 논쟁을 거듭하고 있다는 데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수세기 동안 반복적으로 있었던 직역과 의역에 대한 논쟁 이후, 1950~60년대 이론가들은 체계 있는

---

1) The process of translation between two different written languages involves the translator changing an original written text (the **source text** or **ST**) in the original verbal language (the **source language** or **SL**) into a written text (the **target text** or **TT**) in a different verbal language (the **target language** or **TL**).

번역 분석을 시도하였다. 언어학의 개념을 도입한 대표적인 시도로 의미의 등가 等價 를 다룬 Jakobson의 1959년 논문, *On Linguistic Aspects of Translation*을 들 수 있다. 이 논문에서 Jakobson(2000[1959] : 114)은 다른 언어들 사이의 의미의 등가를 다루며 ‘기호 단위 사이의 완전한 등가는 일반적으로 없다’고 기술한다. 이것은 언어 기호가 기표와 기의로 구성되어 있으나, 임의로 선택된다는 Saussure의 이론을 계승한 것이다. 그와 같은 견해는, 예를 들어, 프랑스어의 *frère*, *soeur*와 한국어의 오빠, 형, 누나, 언니, 동생 사이의 관계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Jakobson(2000[1959] : 114)은 다른 언어 사이의 번역을 다음과 같이 기술한다.

역자는 다른 원천으로부터 받은 메시지를 다시 기호화하여 전달한다.  
그러므로 두 개의 다른 코드로 이루어진 두 개의 등가 메시지가 번역을  
통해 나타난다.<sup>2)</sup>

즉, 출발 텍스트와 도착 텍스트의 전달 내용이 의미에 있어서 등가를 이루는 경우에도 이를 표현하는 기호 단위가 서로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며, 이는 출발 텍스트와 도착 텍스트가 실제 세계를 다르게 구획하는 서로 다른 기호 체계에 속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Jakobson의 관점에서는 서로 다른 언어에서 보이는 차이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문법 및 어휘 형태에서 주로 나타난다. 이를 Jakobson(2000[1959] : 116)은 다음과 같이 기술한다.

언어는 전달해야만 하는 것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다르다. 전달할 수 있을 것에 있어서 다른 것이 아니다.<sup>3)</sup>

여기에서 ‘전달할 수 있을 것’은 전달 내용이라고 여길 수 있으며, ‘전달해야

---

2) The translator recodes and transmits a message received from another source. Thus, translation involves two equivalent messages in two different codes.

3) Languages differ essentially in what they *must* convey and not in what they *may* convey.

만 하는 것'은 각 개별 언어 고유의 문법 및 어휘 형태라고 볼 수 있다. 다른 말로 하자면, 개별 언어에 따라 문법 및 어휘 형태의 차이가 존재하지만, 전달 내용은 언어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전달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관점은 앞으로 살펴 볼 Nida의 역동적 등가, ESIT(Ecole Supérieur d'Interprètes et de Traducteurs, Université Paris III)의 해석 이론에서 제시하는 등가의 개념과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번역을 '등가'의 추구로 고려하는 이러한 관점의 이론적 토대를 살펴보고, 실제 번역 작품의 검토를 통하여 '등가'의 번역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분석하려 한다. 우선, Nida가 제시하는 형태적 등가와 역동적 등가의 개념, 그리고 ESIT의 해석 이론에서 제시하는 대응과 등가의 개념을 살펴보겠다. 이어서, *Harry Potter and the Philosopher's Stone*의 프랑스어 번역본과 한국어 번역본을 통해 재현, 번역 단위, 표현 양태, 자국화와 이국화 등의 문제를 분석할 것이다.

## 2. 등가를 통한 번역

### 1) 대응과 등가

Nida는 한 단어의 의미가 고정적이라는 오랜 생각을 떨쳐 버리고, 단어는 맥락을 통해 의미를 획득하고 문화에 따라 다양한 반응을 유도할 수 있다는 기능주의적 정의를 추구했다고 Munday(2001 : 38)는 평가한다. Nida는 언어 단위의 의미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언어학의 개념을 활용함으로써, 단어들의 구조를 분석하고, 관련된 어휘장에 속하는 유사한 단어들을 구별한다. 예를 들어, 층위에 따라 일련의 단어를 구별하는 위계 구조화, 그리고 관련어들의 구체적인 특성을 규명하는 구성 성분 분석을 사용한다. 위계 구조화를 통해서, 프랑스어를 예로 들면 상위어인 *couleur*와 그 하위어인 *rouge*, *orange*, *jaune* 등을 구별할 수 있다. 구성 성분 분석의 보기로는 사람 사이의 관계를 성 성, 세대, 직계 여부 등에 따라 분류하는 것이 있다. 예를 들어, 한국어의 형수, 처형, 매제와 같은 어휘를 번역할 때 그와 같은 분류가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의미 구조 분석을 통하여 번역 학습자는 주어진 단어의 의미가 매우 다양하며, 무엇보다 맥락에 따라 그 의미가 결정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즉, 은유적 의미와 복잡한 문화적 관용구를 번역할 때, 원활한 의사 소통을 위해 맥락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어떤 구문을 구성하는 개별 단어들의 의미의 총합이 해당 구문의 의미와 다른 경우에 그러하다. 예를 들어, 프랑스어의 *passer devant monsieur le maire*는 직역하면 ‘시장님 앞을 지나가다’이지만, 실제로는 ‘결혼하다’의 뜻이다. 이를 정확히 번역하기 위해서는 문화적 맥락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것이다.

Nida(1964 : 159)는 형태적 등가 *formal equivalence* 와 역동적 등가 *dynamic equivalence* 를 다음과 같이 구별한다. 형태적 등가는 형태와 내용 모두에 있어 메시지 자체에 초점을 맞춘다. 이는 출발 텍스트의 구조를 지향한 번역이라고 할 수 있다. 형태적 등가를 지향하는 번역에서는 출발 텍스트의 구조에 최대한 근접하도록 번역하는 대신에 역주를 첨가하여 독자가 출발 언어의 언어, 문화, 관습에 최대한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한다. 이와는 달리, 역동적 등가는 번역의 수용자와 메시지 사이의 관계가 원문의 수용자와 메시지 사이의 관계와 근본적으로 동일해야 함을 요구한다. 즉, 역동적 등가의 목표는 출발 언어 메시지와 가장 가까운 자연스러운 등가를 찾는 것이다. 이와 같은 수용자 중심의 접근 방법에서는 자연스러운 번역을 위하여, 문법, 어휘, 문화적 지시 대상 등의 번안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Nida(1964 : 167-168)에서 명시한다.

Lederer(2004[2002] : 15)는 Nida가 번역을 형태적 등가와 역동적 등가로 구분한 것을 매우 반가운 일이라고 표현하며, 이는 해석 이론가들이 대응 *correspondance* 의 개념과 등가 *equivalence* 의 개념을 구분한 것과 맞아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기술한다. 해석 이론에서는 언어의 사용 차원과 담화 차원을 구분한다. 사용 차원은 체계로 고려되는 언어의 차원으로서 언어의 구성 요소를 부호로서 해독하는 차원이다. 반면, 담화 차원은 창의적인 등가 표현을 찾아내는 차원으로, 이는 특정한 상황에서만 특정 표현의 대응어로 기능하는 등가어들을 찾아내는 것이다. 그러므로 해석 이론에서는 대응과 등가를 구분하여 사용할 수밖에 없다. 대응과 등가는 해석 이론의 전제 조건인

것이다. Lederer(1994 : 22)에 따르면, 담화의 기호들은 소리로 실현되어 소리와 함께 사라지지만, 청자는 언어에서 벗어나 기억, 개념이나 환기된 사실의 의식 상태를 간직한다. 그리하여 해석 이론에서는 번역은 하나의 텍스트를 이해한 다음, 이 텍스트를 다른 언어의 텍스트로 재현하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이것이 탈언어화를 통한 재현이다.

역자는 두 가지 방식으로 번역을 수행할 수 있다. 첫째, 하나의 언어를 단순히 다른 언어로 대체하는 방식이 있다. 이것은 두 언어 사이에 이미 설정되어 있는 기존의 어휘적, 구문적 대응어를 그대로 사용하는 방법이다. 또 다른 한 가지 방법은 주어진 상황을 머릿속으로 그려보고 텍스트의 의미를 찾아낸 다음, 이를 도착 언어 안에서 적절한 표현을 사용하여 등가어로 나타내는 것이다. Lederer(2004[2002] : 16)에 따르면, 역자가 실제로 번역을 할 때는 위의 두 가지 방법을 모두 동원하게 된다. 번역은 언어 차원의 작업이 아닌 텍스트 차원의 작업이며, 담화 차원에서 언어가 가지게 되는 특성은 미리 규정할 수 없으므로, 대응어를 사용한 번역은 극히 한정된 경우에만 사용된다. 나머지 경우에는 모두 등가로 번역되는 것이다.

## 2) 구성 요소 분석

등가를 통한 번역에 대하여 지금까지 살펴 본 Nida의 이론과 해석 이론의 기본 개념을 기초로, 실제 번역 작품의 검토를 통해 재현, 번역 단위, 표현 양태, 자국화와 이국화 등의 구성 요소가 등가를 통한 번역에 있어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분석하겠다.

### ① 재현

음성을 통한 발화 산물은 사라지기 마련이다. 들은 이야기의 내용은 대략 기억하더라도, 들었던 낱말 하나하나를 그대로 기억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의미의 세세한 부분을 모두 기억하고 자기의 담화 전체를 모국어로 자연스럽게 재현할 수 있는 순차 통역사는 인간의 보편적 능력을 활용하는 것이다. 낱말 들은 사라져도 이해한 것은 기억되는 것이다. 이 경우에, 순차 통역사는 언어

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훈련에 의해 발달되며, 통역사들에게는 두드러지게 보이는 이 능력은 사실 보편적인 것이다. 모든 사람이 이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탈언어화가 순차 통역에 비해 번역에서는 덜 두드러진다 해도 유능한 역자의 번역에서는 늘 발견되는 것이다. 통역사에게서와 마찬가지로 역자들이 이해한 것이 머리 속에 표상되는 것이다.

Lederer(1994 : 116)는 탈언어화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지면에 있는 기호들의 흔적이 번역에 장애가 된다고 기술한다. 원문에서 눈을 떼지 못한 채 번역을 하거나, 머리 속에서 문장을 만들어내지 못한 채 써가기 시작하게 되는 것이다. 그와 같은 작업의 결과는 나타내고자 하는 바를 원어의 형태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표현했을 때보다 훨씬 서툰 것이 된다. Israëli(2004[2002] : 95)은 탈언어화라는 것은 단순히 형태로부터 의미를 도출해내는 것이 아니라, 원문의 형태를 분석하여 원문과 동일한 의미를 다른 형태의 도착 언어에 담아 원문과 동일한 효과를 유도해내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탈언어화를 통한 번역을 아래 보기로 제시할 수 있다.4)

1. a. The door swung open at once. A tall, black-haired witch in emerald-green robes stood there. (85쪽)
- b. La porte s'ouvrit immédiatement. Une grande sorcière aux cheveux noir, vêtue d'une longue robe vert émeraude se tenait dans l'encadrement. (116쪽)
- c. 성문이 금방 핵 열리더니 에머랄드빛 초록색 망토를 입은 키가 크고 머리카락이 새카만 마녀가 서 있었다. (158쪽)

위 보기에서 영어 원문의 *at once*가 프랑스어에서는 같은 뜻의 *immédiatement*으로 번역된 반면, 한국어에서는 ‘즉시’라는 낱말을 그대로 사용하는 대신에 전체 문장이 나타내는 상황을 떠올려 ‘핵’이라는 낱말을 사용했다. 또한, 해당 상황을 한국어로 자연스럽게 나타내기 위하여 두 개의 문장으로 구성된 원문을 하나의 문장을 번역하였다. 또한, 원문의 *stood there*가 프랑스어에서 *se*

4) 보기에서 a는 영어 원문, b는 프랑스어 번역문, c는 한국어 번역문을 나타낸다.

tenait dans l'encadrement으로 바뀌어 번역된 것도 같은 이유에서이다.

반면에, 아래 보기에서는 원문과 번역문의 단어들 대부분 일대일로 대응되어 있다.

2. a. Rejoice, for You-Know-Who has gone at last! Even Muggles like yourself should be celebrating, this happy, happy day! (10쪽)
- b. Réjouissez-vous, puisque Vous-Savez-Qui a enfin disparu. Même les Moldus comme vous devraient fêter cet heureux, très heureux jour! (9쪽)
- c. 기뻐하시오, 그 사람이 마침내 사라졌다오! 이렇게 기쁜 날에는 당신과 같은 ‘머글’들도 축하해야 합니다! (17쪽)

그렇지만, 영어 원문에 대하여 위의 프랑스어 번역과 한국어 번역이 대응을 통한 번역의 결과라고 볼 수는 없다. 원문의 You-Know-Who를 한국어 번역문에서 고딕체의 ‘그사람’으로 표현한 것이나, Muggles를 프랑스어 번역문에서 les Moldus로 나타낸 것을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프랑스어 역자와 한국어 역자가 대응에 의한 번역문을 제시한 것이 아니다. Delisle(1984, Lederer (2004[2002] : 21)에서 재인용)에 따르면, 원문과 번역문의 형태가 유사한 것은 나타내고자하는 바를 재현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이다.

이번에는, 탈언어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오역이 발생한 경우를 살펴보자.5)

3. a. They didn't keep their gold in the house, boy! (50쪽)
- b. Ils ne gardaient pas leur or à la maison. (68쪽)
- c. 사람들은 금은 집 안에 보관하지 않아! (93쪽)

이 예문에서 원문의 they를 프랑스어에서는 3인칭 복수 대명사 ils로 번역하고, 한국어에서는 불특정 다수를 나타내는 ‘사람들은’으로 번역하였다. 물론,

---

5) 이 논문은 번역 품질에 대한 평가는 전혀 다루고 있지 않음을 밝힌다.

they와 ils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가리키는 경우도 있으나, 여기에서는 해당 대명사가 Harry Potter의 부모님을 가리키는 것이다. 또한, they를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 고려하였기 때문에 원문의 과거 시제를 현재형으로 잘못 표현했다. 이 문장은 돌아가신 Harry Potter의 부모님이 생전에 금을 집에 보관하고 있지 않았었다는 것을 나타낸다. 즉, they의 대응어를 부적절하게 제시하여 번역함으로써 오역이 생겨난 것이다.

## 2) 번역 단위

Vinay & Darbelnet(1958 : 16)는 번역을 한 언어에서 다른 언어로 가는 전이로만 보면서도, 번역 단위를 철자상의 낱말의 범주를 넘어 기호들 사이의 응집력으로 인해 분리되어 번역해서는 안 되는 발화 산물의 최소 부분으로 정의한다. 역자가 텍스트를 조사하며 하나의 의미가 일관성 있는 통합을 이루는 것을 지각할 때, 하나의 번역 단위를 소유하는 것이다. 명시적 의미와 인지적 의미의 혼합물인 이 번역 단위가 하나의 의미 단위인 것이다.

순차 통역이 인지적 기억의 역할을 극명하게 보여준다면, 동시 통역의 연구는 들은 소리가 잊혀감에 따라 의미가 단계적으로 구성되는 것을 잘 보여준다. 청자는 자기에게 들려오는 일련의 낱말들을 이따금씩 하나의 의미로 압축한다. Lederer(1994 : 27)는 이러한 작용의 결과로 낱말들의 의미 내용과 인지적 보충물이 하나로 된 것을 의미 단위라고 정의한다. 의미 단위들은 동시 통역사의 머릿속에서 이어지고 겹치면서 전체 의미를 만들어낸다. 이들이 보다 큰 단위들로, 보다 일관성 있는 사고들로 통합되면서 탈언어화된 지식으로 바뀌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의미 단위가 번역에서는 등가의 설정을 가능하게 하는 가장 작은 요소이다.

아래 보기를 살펴보자.

4. a. Then something happened which made him jump about a foot in the air - several people behind him screamed. (86쪽)
- b. Tout à coup, des cris s'élevèrent derrière Harry. (118쪽)
- c. 얼마 후, 놀라서 30센티미터쯤 펄쩍 뛰어오를 만한 일이 벌어졌다.



그의 뒤에 있는 아이들 몇 명이 비명을 질렀다. (161쪽)

원문의 **Several people behind him creamed**에 있어서, 낱말의 경계를 넘어서 번역 단위를 설정했기 때문에 프랑스어 번역문은 원문과 전혀 다른 뜻의 낱말들과 전혀 다른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원문의 **several people**을 한국어 번역문에서 ‘아이들 몇 명이’로 나타낸 것도 마찬가지 이유라고 볼 수 있다. 같은 현상이 아래 보기에서도 발견된다.

5. a. 'No post on Sundays,' he reminded them happily as he spread marmalade on his newspaper, 'no damn letters today - ' (34쪽 -35쪽)
- b. La poste ne fonctionne pas le dimanche, dit-il d'un ton joyeux en étalant consciencieusement de la marmelade sur son journal. Aujourd'hui, pas de lettres. (45쪽)
- c. “일요일에는 우편물이 없지.” 그는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너무나 기쁜 나머지 그만 마멀레이드 잼을 빵에 바르지 않고 신문에 퍼 발랐다. “오늘은 그 빌어먹을 편지들이 오지 않겠지.” (64쪽)

원문의 **No post on Sundays**에 대하여 각 단어를 번역 단위로 삼아 번역문을 제시했을 수도 있었으며, 그 경우에도 나타내고자하는 바가 큰 무리 없이 표현 되었을 수도 있다. 그렇지만, 프랑스어 번역문과 한국어 번역문에서 모두 해당 표현 전체를 하나의 번역 단위로 삼아, 나타내고자하는 바를 가장 정확하게 재현시킬 수 있는 번역문을 제시한 것이다. 특히, 한국어 역자는 영어 원문을 통해 자신이 이해한 바를 정확하게 나타내기 위하여 ‘빵에 바르지 않고’를 덧붙였다. 이것도 해당 표현 전체를 하나의 번역 단위로 고려한 결과이다.

### 3) 표현 양태

각 개별 언어의 낱말들이 현실을 표현하는 방법은 각기 다를 뿐 아니라, 언어로 표현되는 부분은 전체의 일부일 뿐이며, 낱말을 통해 외연화된 부분은 그것이 지칭하는 대상이나 개념의 전부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다.

Lederer(2004[2002] : 23-26)는 그와 같은 현상을 제유 현상이라고 기술한다. 영어의 CD player어와 프랑스어의 lecteur CD를 비교할 수 있다. CD에 녹음된 내용을 재생하는 것에 대하여 영어에서는 ‘연주’라는 개념을 부각시키며, 프랑스어에서는 ‘읽기’라는 개념을 부각시킨다. record player와 tourne-disque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영어에서는 LP판에 녹음되어 있는 것을 ‘재생’시키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프랑스어에서는 LP판을 재생시키기 위하여 회전시키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

아래 보기에서 High Table의 번역을 분석하자.

6. a. He could see the *High Table* properly now. (91쪽)
- b. A présent, il voyait distinctement la Grande Table des professeurs.  
(124쪽)
- c. 그는 이제 선생님들이 앉아 있는 상석을 볼 수 있었다. (169쪽)

연회장에서 학생들의 좌석과 구별되는 교수용 좌석을 원문에서는 ‘높다’는 개념에 초점을 맞추어 High Table로 표현하였다. 그 표현을 프랑스어로는 ‘크다’는 개념을 부각시켜 Grande Table로 나타냈으며, 한국어에서는 ‘위’의 개념을 통해 ‘상석’으로 번역하였다. 또한, 영어와 프랑스어에서는 식탁을 부각시킨 반면, 한국어에서는 좌석을 부각시키고 있다.

아래 보기의 Sorting Hat에 대한 번역도 같은 방식으로 분석할 수 있다.

7. a. The Sorting Hat chose you for Gryffindor, didn't it? (160쪽)
- b. C'est le Choixpeau magique qui a décidé de t'envoyer à Gryffondor, non? (216쪽)
- c. 마법의 모자가 널 그리핀도르로 선택했잖아, 안그래? (295쪽)

영어 원문에서는 모자를 통하여 학생들을 분류한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하여 Sorting Hat으로 표현한 것을 프랑스어는 모자가 학생들을 선택한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chapeau로부터 Choixpeau라는 단어를 만들어 번역하였다. 이

와는 달리, 한국어 번역문에서는 모자가 가지고 있는 마력을 강조하여 ‘마법의 모자’라고 번역한 것이다.

#### 4) 자국화와 이국화

외국 문학에 관해서는 모든 독자가 잠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처지에 있다. 그러나 이 외국 문학이 암시하는 풍습이나 전통 등에 관해서 대응어로 번역한다면, 독자는 그 외국 문화 현상의 전모를 이해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만큼 충분한 지식을 갖추고 있는 독자는 거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역자가 보충 지식을 번역문 독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Lederer(1994 : 123)의 표현을 빌자면, 번역문 독자는 문외한일지 모르나 바보는 아니다. 그래서 독자는 모르고 있었던 외국 문화에 대한 지식을 텍스트 덕분에 가지게 된다. 역자는 원문에서 드러나 보이지 않는 의미를 명시적으로 바꿈으로써, 또한 자신의 언어에 직접적 대응 표현이 없는 지시물들을 충분히 나타낼 수 있는 언어 수단들을 사용함으로써 역자는 독자를 돕는 것이다. 번역문 독자가 원문 독자만큼의 지식을 가지게 되지는 않을지라도, 계속하여 무지한 상태로 있지는 않게 되는 것이다.

영국의 음식 문화를 엿볼 수 있는 아래 보기를 분석하자.

8. a. A moment later the puddings appeared. Blocks of ice-cream in every flavour you could think of, apple pies, treacle tarts, chocolate éclairs and jam doughnuts, trifle, strawberries, jelly, rice pudding ... (93쪽)
- b. Ce fut alors le moment du dessert : crèmes glacées à tous les parfums possibles, tartes aux pommes, éclairs au chocolat, beignets, babas, fraises, gâteau de riz. (127쪽)
- c. 잠시 뒤 후식이 나왔다. 각종 맛이 나는 아이스크림과, 애플 파이, 당밀 타트(과일 등이 들어 있는 파이:역주), 초콜릿 에클레어(가늘고 긴 초콜릿에 슈크림을 뿌린 것:역주), 잼 도넛, 트라이플(포도주에 담긴 카스텔라 류:역주), 딸기, 젤리, 쌀 푸딩…….

만찬의 후식으로 제공된 것 가운데, 한국어 독자들이 잘 알고 있지 않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서 역자는 역주를 제시하였다. 반면에, 프랑스어 역자는 독자들에게 낯설다고 판단한 *tracle tarts*와 *jelly*는 누락시켰으며, 프랑스 음식 문화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한 *rice pudding*은 각각 *gâteau de riz*로 대체하였다. 이와 같은 누락에 대하여, Lederer(1994 : 127)는 다음과 같이 기술한다. 문화적 요소들을 제거하는 것은 모든 지식의 역동적 측면을 소홀히 하는 것이다. 텍스트는 독자가 모르던 것을 부분적으로 메꾸어준다. 독자가 외국 문화에 대해 모르던 것을 텍스트를 읽으며 알게 되는 것이다. 매 순간 독자의 지식은 텍스트를 읽는 덕분에 확장된다. 유능한 역자는 원문의 문화를 순화시키지도, 이해해야 하는 것을 모르는 채로 남겨두지도 않는다.

아래 보기의 한국어 번역문을 통해 그와 같은 견해를 확인할 수 있다.

9. a. Harry pressed on through the crowd until he found an empty compartment near the end of the train. [...] With the twins' help, Harry's trunk was at last tucked away in a corner of the compartment. (71쪽)
- b. Harry se fraya un chemin parmi la foule jusqu'au dernier wagon où il trouva enfin un compartiment vide. [...] Avec l'aide des jumeaux, Harry parvint à s'installer avec sa valise dans un coin du compartiment libre. (98쪽)
- c. 해리는 사람들을 헤치고 나아가 기차 끝에 다 가서야 간신히 빈 칸막이 객실 하나를 찾았다. [...] 쌍둥이의 도움으로, 해리의 가방은 마침내 객실 한쪽에 밀어 넣어졌다. (134쪽)

유럽 기차의 객차 구조가 한국 기차의 객차 구조와 다르기 때문에, 영어의 *compartment*와 프랑스어의 *compartiment*이 가리키는 대상이 한국어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한국어 역자는 ‘칸막이 객실’이라는 표현을 만들어 내어 한국어 독자에게 최대한의 정보를 제공한다.<sup>6)</sup>

---

6) 한국어 독자에게 정보를 최대한으로 제공하기 위해 사용한 ‘칸막이 객실’이 원문이나

한국어와 비교하여 언어의 측면이나 문화의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유사성이 많은 프랑스어에서는 자국화 전략을 선택한 표현들이 많이 발견된다. 이는 자국 문화 중심의 접근이라기보다는 해당 표현이 암시하는 내용을 프랑스어 독자가 원문의 독자와 동일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와 같은 효과를 한국어에서 유도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아래 보기를 살펴보자.

10. a. 'Potter, this is Oliver Wood. Wood - I've found you a Seeker.'  
(112쪽)
- b. Potter, je vous présente Olivier Dubois. Dubois, je vous ai trouvé un attrapeur. (153쪽)
- c. “포터, 이쪽은 올리버 우드다. 우드, 내가 우리 팀 수색꾼을 데려왔다.”  
(206쪽)

영어 이름 Oliver Wood를 프랑스어 번역문에서 Olivier Dubois로 제시하였다. 프랑스 독자들이 프랑스어 번역문에서 영어로 쓰인 Oliver Wood를 읽는다면 받게 될 이질감을 없애기 위한 것이다. Oliver를 Olivier로, Wood를 Dubois로 바꾼 것이 대응어를 통한 번역으로 여겨질 수도 있을 것이지만, 차라리 Oliver Wood를 통해 영어 독자들이 가지게 되는 느낌을 Olivier Dubois를 통해 프랑스어로 재현한 것이라고 분석하는 편이 나을 것이다.

마법 학교의 신입생들이 준비해야 할 교과서 목록의 저자 이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몇몇 개를 보기로 들어보자

11. a. The Standard Book of Spells (Grade 1) by *Miranda Goshawk*  
A History of Magic by *Bathilda Bagshot*  
A Beginner's Guide to Transfiguration by *Emeric Switch*  
One Thousand Magical Herbs and Fungi by *Phyllida Spore*

---

프랑스어 번역문에서와 달리 필요 이상으로 부각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이후로는 단순히 ‘객실’로 번역하고 있다.

(52쪽-53쪽)

b. *Le Livre des sorts et enchantements* (niveau 1), de Miranda Fauconnette

*Histoire de la magie*, de Bathilda Tourdesac

*Manuel de métamorphose à l'usage des débutants*, de Emeric

G. Changé

*Mille herbes et champignons magiques*, de Phyllida Augirolle

(71쪽)

c. 《표준 마법서(1학년)》, 미란다 고시오크 지음

《마법의 역사》, 바틸다 백셋 지음

《초보자를 위한 변신술 지침서》, 에메릭 스위치 지음

《1000가지 마법 약초와 곰팡이》, 필리다 스포어 지음 (98쪽)

Goshawk는 ‘매’라는 뜻의 hawk를 연상시키므로, faucon으로부터 Fauconette를 만들었으며, bag을 연상시키는 Bagshot에 대해서는 sac를 사용하여 Tourdesac를 만들었다. 마찬가지로, ‘바꾸다’는 뜻을 가진 이름 Switch를 Changé로 번역하였다. 또한, Spore라는 이름은 ‘포자’의 뜻을 나타내므로, 프랑스인들이 즐겨 먹는 식용 버섯인 girolle로부터 Augirolle이라는 이름을 만들어냈다.

문화적 요소에 대한 자국화는 아래 보기에서도 잘 드러난다.

12. a. Harry, on the other hand, was going to Stonewall High, the local comprehensive. (28쪽)

b. Harry, pour sa part, devrait se contenter du collège du quartier. (36쪽)

c. 그러나 해리는 그 지역 공립학교인 스톤월 중학교에 갈 것이다. (52쪽)

영어 원문의 *Stonewall High, the local comprehensive*로 표현된 공립 중학교를 프랑스어 번역문에서는 *collège du quartier*로 나타냈다. 만약, 원문의 고유 명사를 그대로 사용했을 경우에는 원문에서 보잘 것 없다는 의미를 지니는 공립 중학교의 지위가 이국적 요소의 효과에 의해 오히려 부각될 것이다. 이를 피하기 위해 *collège du quartier*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또한, 프랑스에서 흔히 공립 중학교는 위인의 이름을 학교 이름으로 사용하지만 번역문에서는 원문에서와 같은 평가 절하의 효과를 위해 학교 이름조차 명시하지 않았다. 원문의 *was going*을 프랑스어 번역문에서 *devrait se contenter*로 옮긴 것도 그와 같은 평가 절하의 분위기를 전달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이 소설은 배경이 영국이며 비현실적인 내용을 많이 담고 있다. 그와 같은 이국적 요소를 독자들이 느낄 수 있는 번역문이 상당히 많이 발견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13. a. 'I'm Ron Weasley,' Ron muttered. / 'Harry Potter,' said Harry.  
/ 'Are you really?' said Hermione. (79쪽)
- b. - Je m'appelle Ron Weasley, marmonna Ron. / - Moi, c'est Harry Potter, dit Harry. / - C'est vrai? s'exclama Hermione. (109쪽)
- c. “론 위즐리야.” 론이 우물우물 말했다. / “해리 포터야.” 해리가 말했다. / “정말이니?” 헤르미온느가 말했다. (52쪽)

위 보기에서 볼 수 있듯이, 주요 등장 인물에 대해서는 이국적 요소를 내기 위하여 이름을 변경하지 않고 원문 그대로 나타냈다.

14. a. When Mr and Mrs Dursley woke up on the dullm grey Tuesday our story startsm there was nothing about the cloudy sky outside to suggest that strange and mysterious things would soon be happening all over the country. (7쪽)
- b. Lorsque Mr et Mrs Dursley s'éveillèrent, au matin du mardi

où commence cette histoire, il faisait gris et triste et rien dans le ciel nuageux ne laissait prévoir que des choses étranges et mystérieuses allaient bientôt se produire dans tout le pays. (6 쪽)

- c. 우리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그 우중충하고 흐린 화요일, 더즐리 부부가 잠에서 깨어났을 때 구름이 잔뜩 낀 바깥 하늘에는 곧이어나라 전체에 걸쳐 기이하고도 신비스러운 현상이 일어나리라고 예고해주는 징조는 아무것도 없었다. (12쪽)

이 보기에서는 **Dursley** 부부를 가리키며 프랑스어 번역문에서 고유 명사를 원문대로 사용함과 동시에, **M**와 **Mme**이라는 프랑스어 표현 대신에 **Mr**와 **Mrs**라는 영어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번역 작품임으로 확연히 드러내고 있다.

한국어 번역에서는 변안을 하지 않는 이상 위의 프랑스어 번역문에서 채택한 정도의 자국화가 거의 불가능할 것이다. 또한, 언어의 측면이나 문화의 측면에서 모두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영어 원문에 대하여, (13.c)와 (14.c)에서 볼 수 있듯이 한국어 번역문에서 특히 고유 명사를 그대로 사용함으로써 번역 작품임을 드러냄과 동시에 이 소설이 보이는 비현실적 느낌을 부각시킨다.

### III. 맺음말

이 논문은 번역에 대한 여러 이론 가운데 **ESIT**의 해석 이론에 대하여 이론적 측면을 살펴보고, 영어 원문에 대한 프랑스어 번역문과 한국어 번역문의 검토를 통해, 등가를 통한 번역의 구성 요소를 분석하였다. 등가를 통한 번역의 이론은 직역과 의역 사이의 반복된 논쟁에 대하여 새로운 견해를 제시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Nida**와 **ESIT**의 이와 같은 경험론적 이론이 번역에 대한 **Benjamin**의 철학적 견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는 것이 흥미롭다.

**Benjamin**(2000[1923] : 16)에 따르면, 번역은 원작과 분리되어 존재하지만, 원작에 뒤따라 원작의 ‘사후 세계’로부터 등장하면서 원작에 ‘계속되는



생명'을 부여하는 식으로 원작과 맺는 관계를 통해 존재한다. 즉, 번역이 독자들에게 원작의 의미 또는 정보 내용에 대한 이해를 제공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Benjamin(2000[1923] : 22)은 번역가의 과업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다른 언어의 주문에 빠져 있는 순수 언어를 자신의 언어로 표출시키는 것, 작품에 감금되어 있는 언어를 원작의 재창조를 통해 해방시키는 것이 번역가의 과업이다.<sup>7)</sup>

이처럼 경험론적 측면과 철학적 측면에서 같은 맥락으로 이해될 수 있는 등가를 통한 번역 이론은 텍스트 유형<sup>8)</sup>에 관계없이 번역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공한다. 또한, 해석 이론은 스키포스 이론 *skopos theory* 이나 폴리시스템 이론 *polysystem theory*<sup>9)</sup> 과는 달리 텍스트에 밀접하게 관련된 요소들만 고려하므로 통번역 학교에서 교육을 통해, 그리고 교육을 위해 구성된 이론이라는 점에서 번역 이론 분야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고 볼 수 있다.

---

7) It is the task of the translator to release in his own language that pure language which is under the spell of another, to liberate the language imprisoned in a work in his re-creation of that work.

8) 박정준(2010)에서는 소설 작품과 수학 이론서의 번역문을 검토함으로써 텍스트의 유형에 따른 번역 양식의 차이를 분석한다.

9) 스키포스 이론과 폴리시스템 이론에 대해서는 Munday(2001)에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다.

## ❖ 참고 문헌

- 박정준, 「프랑스어 부정관사와 정관사의 의미와 번역」, 『인문과학연구』, 제28집 : 5-37.
- Benjamin, Walter, “The task of the translator”, in Venuti(2000) : 15-25, 2000[1923]<sup>10)</sup>.
- Delisle, Jean, *L'analyse du discours comme méthode de traduction*, Ottawa, Editions de l'Université d'Ottawa, 1984.
- Israel, Fortunato (éd.), *Identité, altérité, équivalence?*, Paris, Minard, 2004[2002]. (한역 : 이향, 편혜원, 김도훈 역, 『통번역과 등가』, 서울, 한국문화사.)
- Israel, Fortunato, 「원문과 번역문의 연결고리」, in Israël(2004[2002]) : 87-104.
- Jakobson, Roman, “On linguistic aspects of translation”, in Venuti(2000) : 113-118, 2000[1959].
- Lederer, Marianne, 「‘대응’과 ‘등가’ : 언어차원의 번역과 담화 차원의 번역」, in Israël(2004[2002]) : 13-32.
- Lederer, Marianne, *La traduction aujourd'hui*, Paris, Hachette, 1994.
- Munday, Jeremy, *Introducing Translation Studies, Theories and applications*, London, Routledge, 2001.
- Nida, Eugene A., *Toward a Science of Translating*, Boston, Brill, 1964.
- Venuti, Lawrence. (ed.), *The Translation Studies Reader*, London, Routledge, 2000.
- Vinay, J.-P. & BARBELNET, J., *Stylistique comparée du français et de l'anglais*, Paris, Didier, 1977[1958].

## 번역본 조사 문헌

- 영어 원본 : ROWLING, J.K., *Harry Potter and the Philosopher's Stone*, London, Bloomsbury, 2001[1997].
- 프랑스어 번역본 : Traduit de l'anglais par Jean-François Ménard, *Harry Potter, A l'école des sorciers*, Paris, Gallimard, 1998.
- 한국어 번역본 : 김혜원 옮김, 『헤리포터와 마법사의 돌』, 서울, 문화수첩 리틀북스, 2003.

---

10) 각괄호 안의 숫자는 원본의 출간 연도를 가리킨다.

❖ ABSTRACT

## Equivalence in Translation and its Components

PARK Jung-Joon

The subject of the paper is to discern the validity of the translation theory put forward by the ESIT(Ecole Supérieur d'Interprètes et de Traducteurs, Université Paris III) and how it differentiates from the other translation theories. First, the paper will analyze the theoretical aspects put forward by examining the equivalence that may be discerned between the french and korean translation in relation to the original english text that is being translated. Employing the equivalence in translation may shed new insights into the unterminable discussions we witness today between the literal translation and the free translation.

Contrary to the formal equivalence the dynamic equivalence by Nida suggests that the messages retain the same meanings whether it be the original or a translated text to the/for the reader. In short, the object of the dynamic equivalence is to identify the closest equivalence to the suggested source language.

The concept of correspondence and equivalence defined by theoreticians of translation falls to the domain of dynamic equivalence suggested by Nida. In translation theory the domain of usage of language and the that of discourse is denoted separately. by usage one denotes the translation through symbols that make up language itself. In contrast to this, the discourse is suggestive of defining the newly created expressions which may be denoted as being a creative equivalence which embodies the original message for the singular situation at hand. The translator will however find oneself incorporating the two opposing theories in translating. Translation falls under the criteria of text and not of language, thus one cannot regulate or foresee any special circumstances that may arise in translation of discourse, the translation to reflect this condition should always be delimited. All other translation should be subject to translation by equivalence.

The interpretation theory in translation (of ESIT) in effect is relative to both

the empirical and philosophical approach and is suggestive of new perspective in translation. In conclusion, the above suggested translation theory is different from the skopos theory and the polysystem theory in that it only takes in to account the elements that are in close relation to the original text, and also that it was developed for educational purposes opening new perspectives in the domain of translation theories.

---

**Key Words**

번역의 해석 이론, 탈언어화, 등가, 대응, 『해리 포터와 마법사의 돌』  
interpretation theory in translation, deverbalization, equivalence, correspondence,  
*Harry Potter and the Philosopher's Stone*

논문접수일: 2010. 2. 23.

심사완료일: 2010. 4. 10.

게재확정일: 2010. 4. 15.